

# 전법 원력 세워 위기 이기자

(Benchmarking)을 하기 위해서 불광사를 방문했습니다. 하도 많이 오니 저희들이 안내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라고 거의 실무자 한 사람은 그 쪽에 배치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유명 사찰을 보면 신도 조직이 저희 불광사 법등 조직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수행조직, 교육조직, 봉사조직, 또는 합창단과 지역, 계층 조직이 각 사찰의 특수성에 맞게 다양화해서 그것을 묶어서 신도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불광사가 70년대 도심포교당 운영의 첫 출발의 문을 열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모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후발 사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디다만, 이제 다시 70년대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미래의 포교를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가갈 수 있는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호법 활동에 대해서입니다. 호법(護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경전에 호법행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불법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불법을 우리 생활 속에 응용을 해서 실천한다는 것이 호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호법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교육, 복지, 문화, 의료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법법회를 하게 되는데 호법회원이 되면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매월 일정액의 호법 봉납금을 냅니다. 현재 4,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평균 1만원이상씩 내고 있습니다. 호법 봉납금을 모아서 한 첫 번째 사업이 교육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설립한 것이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교육원을 통해 일반 신도들을 교육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빌려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에 오픈 되어 있는 그러한 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또 복지사업도 같이 하는데, 현재 12월 17일 개원식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구립 노인요양원을 위탁 받았습니다. 이런 호법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원금은 사찰 경상비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 돈은 묶어 놓았다가 특수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출판사업입니다. 월간 <불광>과 불광출판사를 통해 많은 불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 불광사보로 <공감플러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찰에서 사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감플러스>는 불광사가



매서운 날씨에도 800여 불자가 법회에 참석, 불광사 회주 지충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의 문화, 나아가 그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담아서 함께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의 역할과 사보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광이 미래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은 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많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부처님 법을 전달하고, 또는 대중의 고통을 이루만져 주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스님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누가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스님도 없고 일반 재가자와 실무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대승불교인데 그동안 스님들에게 중생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부 다 산 속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서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소승적 입장에서 수행하는 정서가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자신을 부어해서 대중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한국불교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없습니다. 산속에

는 엄청난 불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중 곁에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출가자의 사회·역사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불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교세 확장에 불교는 이제 비교의 대상에서 이탈되었습니다. 경쟁의 대상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이죠. 광화문 광장에 가면 돌에 근대 한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꼭 새겨놓았습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는 여러 가지 기록이 많지만, 한국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나 그런 단체에서도 불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슬결과 함께 해 왔던 불교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탈되고,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새롭게 원력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법의 원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전법의 원력으로 사이버 포교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꼭 메우고 법회를 보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전법의 원력을 세워서 함께 위기를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70. 일등 포교사 이종의 스님

지암 이종의(智庵 李鍾郁, 1884~1969) 박사님의 호는 법운이고, 별명은 '한국신흥불교 제조창'이다. <미륵신앙과 용화세계> <사명 대사> <의상 대사> <무학 대사> 등 수 많은 전기소설을 쓰면서 해아릴 수 없는 신통과 비화(秘話)를 기록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백장미의 꿈> <창춘의 비밀> 같은 문예소설을 써서 실감미 나는 새로운 인생을 구상하고 창조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박사님의 손에는 책이 떨어지지 않았고, 작은 검정 가방 속에는 몇 편의 원고가 담겨져 있었다. "박사님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야 하는 건데, 급한 성미에 눈앞에 일을 달성코자 하니 멀리 보는 눈이 작았지."

이렇게 1991년 나이 80세로



⑥ 법대로 실천하는 힘  
⑦ 위의 구족력  
⑧ 웅맹정진력  
⑨ 신심무진력  
⑩ 성취중생력이 그것인데, 나에게 위는 번재력(辨才力)이 부족하던 말이었다."

그러나 박사님은 늘 말로 부족한 논리를 다시 글로 써서 승부를 겨루곤 하였다. 이렇게 박사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부족한 점을 가지고 후배들을 지도해 주셨다. 반대로, 김어수 박사님은 위의 적정한 덕과 사교 능란한 덕화로 포교를 하셨다. 우리시대 불교 포교사 가운데 이종의 박사님 만큼 많이 아시는 분도 드물었다. 특히 웅맹정진력으로 부족한 기력을 살려가면서 위력을 성취코자 노력하

### 다수의 전기소설 집필 '한국신흥불교 제조창' 별명 얻어

"암하노불(岩下老佛) 바위 아래 늙은 부처이지. 그래서 힘이 없어."

"늙은 부처가 한 번 일어나면 앓을 틈이 없다 하던데요."

"돌에 부딪쳐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나는 1929년 금강산 운악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1937년 일본 교토 화원중학을 필두로 일제전문학교, 다시소(大正)대학을 졸업하고, 1945년 귀국하여 불교혁신운동, 청년운동을 주도하였으나 건강이 잘 따라 주지 않아 큰일을 할 수 없었어."

"경이상업학교, 단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다시소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어. 모두가 학구병이지. '보조사상 연구'로 조계종학을 정립하고, 고려불교와 동양철학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으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원효 스님처럼 거시적인 세상을 살아

일적하실 때까지 계속 읽고, 쓰고, 말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에 비하면 성과가 크지 못하다는 말씀이다.

박사님의 학문에 비하면 목소리가 작아 그의 기량을 마음껏 펴내지 못했다. 사담(私談)이나 논단에 있어서는 일본의 양보함이 없는데, 막상 높은 단 위에 올라가면 대중을 압도하는 힘이 부족하였다.

박사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단점을 잘 아셨다.

"내 한 가지도 부족한 점이 없는데, 바로 이것이 부족하기가 죽는단 말이지. <화엄경>에 포교사가 되려면 열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 ① 법을 잘 알고
- ② 능히 잘 펴고
- ③ 대중가운데 서도 두려움이 없고
- ④ 말이 끊어지지 않고
- ⑤ 선교방편력

였던 위대한 포교사다.

특히 초기 조계종단, 법상종, 천태종, 미륵종 같은 데서는 자신들의 종학에 제일가는 대변자로 이종의 박사님을 내세웠다. 특히 진관사의 역사를 밝히고 불국사의 비화를 써서 '효행불교'와 '해원상생(解冤相生)의 불교'를 강조한 일은 누구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흥분하시며 독서당 문인들의 '삼각산' 시를 읽는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

"누가 이 세상 혼돈의 곁집을 깨고 최초로 태어났던가 삼각산 봉우리 늘 푸르고 구름 위에 우뚝 솟아섰네 그윽한 골짜기에서는 봉황이 날고 흰 호랑이 뛰다 그러나 흰 구름은 말 없이 하늘을 덮고 축축이 땅 위에 비바람을 내리고 있네."

※ 카달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 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규격 특대호-국전 (91.9x61.5cm) | 한지-국 3절 (30.5x63cm) | 대-국 6절 (30x31cm) | 소-4x6 12절 (25.5x26.5cm) | 탁상용 (21.5x15cm) | 미니 치량용 (8.8x9.5cm) | 메모 수첩용 (9.5x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